

鄉歌作家의 思想攷

金 承 璨

I

신라의 향가작품에 나타난 사상에 대한 연구는 깊이있게 진전되었으나 그 작가에 대한 사상은 그렇게 많이 연구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필자는 여기서 향가 작가의 몇 분을 대상으로 하여 그 사상을 고구해 보고자 하는데, 이유는 향가 작품의 배경 사상을 올바르게 규명해 보려면 불가피하게 그 작가의 사상이 논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II

향가의 작가 가운데 여기서는 우선 景德王代에 祭亡妹歌와 兜率歌를 지은 月明師와 怨樹歌를 지은 信忠 및 安民歌와 讚耆婆郎歌를 지은 忠談師, 그리고 元聖王代에 遇賊歌를 지은 永才의 사상만을 대상으로 하여 고구해 고자 한다.

1) 月明師

경덕왕대의 승려이요 國仙之徒이었던 월명사에 대하여 金鍾雨님은

“宗教的으로는 彌陀와 彌勒의 두 신앙을 共有하고 文學上으로는 純粹와 參與를 共行하여 신라의 才分있는 예술인인 동시에 圓融한 佛敎思想家이기도 했다.”¹⁾

1) 金鍾雨, ‘鄉歌로 통해 본 月明師의 位置’, 韓國文學論叢 2輯 p. 10, 韓國文學會, 1979.

2 韓國文學論叢 第3輯(金鍾雨博士 停年退任紀念號)

라 하여 미타와 미륵의 두 신앙을 공유한 불교사상가라 하였다.

월명사가 國仙之徒이기에 미륵사상을 신봉하고 있는 인물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또 祭亡妹歌의 ‘彌陀刹良逢乎吾道修良待是古如’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타 국토(정토)가 언급됨을 감안하면 미타사상도 아울러 신봉하고 있는 승려라 하겠다. 그러나, 그가 다음 기록과 같이 四天王寺에 常居했다는 것을 간과할 수는 없을 듯하다. 三國遺事 月明師 兜率歌條에 의하면,

“월명은 항상 四天王寺에 살았으며 저(箒)를 잘 불었다. 일찌기 달밤에 문 앞 큰 길에서 저를 불며 지냈더니, 달이 그 소리에 수레를 멈추었기 때문에 그 길을 月明里라 하였다. 師는 또 이로써 이름이 났다. 師는 곧 能俊大師의 문인이다.”

라 하였다. 사천왕사는 神印宗의 大德인 明朗法師가 세웠고 국가에 재난이 있을 때 佛說灌頂伏魔封印大神呪經에 설해진 文豆婁秘法을 사용하던 道場이었다.

- (1) 總章元年戊辰 唐將李勣統大兵 合新羅滅高麗 後餘軍留百濟 將襲滅新羅 羅人覺之 發兵拒之 高宗聞之赫怒 命薛邦興師將討之 文武王聞之懼 請師開秘法禳之 因茲爲神印宗祖 (遺事 明朗神印條)
- (2) 王甚憚之 會群臣問防禦策 角千金天尊曰 近有明朗法師入龍宮 傳秘法以來 請詔問之 朗奏曰 狼山之南有神遊林 創四天王寺於其地 開設道場則可矣 時有貞州使走 報曰 唐兵無數至我境 廻槩海上 王召朗曰 事已逼至如何 朗曰以彩帛假構矣 王以彩帛營寺 草構五方神像 以瑜珈明僧十二員 明朗爲上首 作文豆婁秘密之法 時唐羅兵未交接 風濤怒起 唐舡皆沒於水 後改觀寺名四天王寺 (遺事 文虎王法敏條)
- (3) 先是密本之後 有高僧明朗 入龍宮得神印(梵文文豆婁 此云神印) 祖創神遊林 (今天王寺) 屢禳隣國之寇 (遺事 惠通降龍條)
- (4) 以咸亨元年庚午還國 聞事於朝 命神印大德明朗 假設密壇法禳之 國乃免 (遺事 義湘傳教條)

위의 네 說話를 종합하면, 總章元年戊辰에 唐將 李勣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신라와 합심해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돌아갔다. 그리고 남은 唐의

2) 兜率歌에도 彌勒座主라는 말이 나오고, 그에 관한 설화에서도 「한 童子와 慈氏像」의 얘기가 나올을 보라 月明師와 彌勒 思想은 밀접함.

장수와 병졸이 장차 신라를 습격하려 하였는데 이를 안 신라가 군사를 내자, 당의 高宗이 화를 내어 仁間을 옥에 가두고 군사 50만명을 교련하여 薛邦을 장수로 하여 신라를 치려고 하였다. 이 사실을 안 義湘이 곧 고국으로 돌아와 왕께 아뢰었다. 왕은 두려워하여 군신을 모아 막을 계책을 물으니 金天尊이 ‘明朗法師가 용궁에 들어가서 비법(文豆婁秘密之法)을 배워 왔으니 그를 불러 물어 보라’ 하였다. 이에 明朗을 불러 물어보니 ‘狼山 남쪽 神遊林에 사천왕사를 세우고 道場을 열면 물리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때 貞州에서 사람이 달려와 ‘당나라 군사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우리 국경에 다가와 바다 위를 순회한다’고 보고했다. 왕은 급히 明朗을 불러 일을 추진시키니, 이에 彩帛으로 임시 절을 짓고 풀로써 5方神像을 만들고 瑜伽明僧 12인으로서 明朗을 우두머리로 삼아 文豆婁秘密之法을 지었다. 그랬더니 羅·唐 군사가 아직 접전하기도 전에 바람과 물결이 사납게 일어나 당나라 배들이 모두 물에 침몰하여 병란을 면했다는 것이다. 그리 임시 절을 사천왕사로 바꾸고 큰 병란이 있으면 이 절에서 문두루비법의 도량을 배풀어 그 병란을 미연에 방지했다는 것이다.³⁾

이상으로 보아 狼山 남쪽에 있는 사천왕사는 호국사찰로서 眞言宗(瑜伽宗)의 별파인 神印宗의 근본 도량임을 알 수 있다. 월명사도 이 사찰에서 常住한 이상 眞言宗(瑜伽宗)을 신봉했음이 틀림없다. 그러하기에 그의 작품에 미륵과 미타가 등장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신라 聖德王때에 位가 重阿飡이요 職이 執事侍郎이었던 金志誠이 亡父母를 위해 彌勒菩薩像과 阿彌陀佛像을 조성한 그 사상이 法相宗(瑜伽宗)에 있었다면⁴⁾ 월명사와 김지성은 동계의 불교 宗旨를 가지었다고 할 수 있을 듯하다.

2) 信 忠

孝成王이 潛邸時에 바둑을 두면서 宮庭의 잣나무를 증인으로 하고 맹세

3) 庚子 設文豆婁道場於東京四天王寺 二十七日 以讓藩兵(高麗史世家 卷第九, 文宗28年 秋 7月條)

4) 文明大, ‘新羅法相宗의 成立問題와 그 美術’, 歷史學報 62. 63輯, 歷史學會, 1974.

4 韓國文學論叢 第3輯(金鍾雨博士 停年退任紀念號)

했던 약속을 어기자 증인적인 잣나무에 노래를 지어 붙이니 그 나무가 말라 버리게 되었다는 설화를 지닌 신충의 사상을 철학해 보자.

먼저 신충에 관한 三國史記의 기록을 적출하면,

- (1) 孝成王 3年(739) 春正月 拜祖考廟 中侍義忠卒 以伊漚信忠爲中侍
- (2) 景德王 16年(757) 春正月 上大等思仁病歿 伊漚信忠爲上大等
- (3) 景德王 23年(763) 八月 桃李再花 上大等信忠侍中金龜免

이라는 세 기록밖에 없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충이 孝成王代와 景德王代를 걸쳐 5년간 中侍를 하였고, 7년간 上大等을 역임한 사실이다. 이처럼 그는 兩朝에 총애가 두터웠음을 보아 당시 王黨派에 속한 인물임엔 틀림없다.⁵⁾ 그런데 三國遺事의 信忠掛冠條의 다음 기록이 문제를 제기한다. 즉,

‘景德王 22년 계묘에 신충이 두 벗과 서로 약속하고 벼슬을 버리고 南岳에 들어 갔는데, 두 번이나 불려도 나오지 않고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향을 위해 斷俗寺를 세우고 살며 종신토록 산 속에 살면서 대왕의 복을 빌켜달 원하니 왕이 허락하였다. 그 절에 왕의 眞影을 모시니 金堂 뒷벽의 것이 그것이다,

이 서사기록에 대해 梁柱東·李基白님은 잘못이라 하였다. 먼저 梁님의 견해를 보이면,

‘三國史 所載엔 信忠이 二友로 더불어 入山落髮하야 斷俗寺를 創하였다 하였는데 遺事 別記엔 李俊(李純)이 斷俗寺를 創하였다 하였으니 兩說이 不同이나 姑兩存之한다 함이다. 그러나 禪師가 據引한 三國史엔 三人이 相約入山한 일이 없고 오죽 李純이 削髮爲僧하였음을 記錄하였을 뿐이다. ……생각건대 禪師는 三國史文의 「免」一字를 看過한 듯하다. 卽 三國史記 原文은 信忠·金龜 兩人의 辭免과 李純의 避世入山이 別個 事實로 叙述되어 있는데, 禪師는 「免」一字를 看過하야 信忠·金龜·李純 三人이 모두 「爲王寵臣 忽一旦避世入山」한 것으로 읽어 遺事에 그를 引할새 「忠與二友相約 掛冠入南岳 再徵不就」云云이라 한 것이다. 禪師가 史記文을 誤讀한 理由는 神文王代에 同名의 又 한 信忠이 있어 奉聖寺를 創한 事實이 「三和尚傳」에 記述되어 있기 때문에 史記의 別個 三人을 곧 三和尚으로 驛斷한 때문이다.’⁶⁾

5) 李基白, ‘景德王과 斷俗寺·怨歌’, 新羅政治社會史研究 p. 218, 一潮閣, 1974.

6) 梁柱東, 古歌研究 pp. 610-11, 博文出版社, 1957.

라 하여 一然禪師가 三國史記의 ‘景德王 22年 八月…上大等 信忠侍中金龜免 大奈麻李純爲王寵臣 忽一旦避世入山 累徵不就 剃髮爲僧 爲王創立斷俗寺居之’의 기록 가운데 ‘免’을 간과함으로써 上記 遺事의 기록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그 誤讀의 이유는 ‘三和尚傳’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李純의 전하는 三國遺事의 信忠掛冠條에 나오는 別記의 내용——別記云 景德王代 有直長李俊(高僧傳作李純) 早曾發願 年至知命 須出家創佛寺 天寶七年戊子 年登五十矣 改創槽淵小寺爲大刹 名斷俗寺 身亦削髮 法名孔宏長老 住寺二十年乃率 與前三國史所載不同 兩存之闕疑——이 옳아, 斷俗寺란 李純이 경덕왕 7년(748)에 지은 것으로 신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大東禪教考에서도

‘景德王二十二年(唐代宗慶德元年) 大奈麻(官名也) 李純 剃髮爲僧 爲王創立斷俗寺 居之(在晉州)’

라 되어 있어, 결코 신증이 단속사를 창건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一然禪師가 三國史記를 보고 誤讀하였던 관계 기사를 우선 史記와 遺事에서 뽑아보자.

- (1) 二十二年八月 上大等信忠侍中金龜免 大奈麻李純爲王寵臣 忽一旦避世入山 累徵不就 剃髮爲僧 爲王創立斷俗寺居之 (三國史記 景德王條)
- (2) 景德王二十二年癸卯 忠與二友相約 掛冠入南岳 再徵不就 落髮爲沙門 爲王創立斷俗寺居焉 願終身丘壑 以奉福大王 王許之 留眞在金堂後壁是也 南有村名俗休 今訛云小花里 (三國遺事 信忠掛冠條)

위의 두 史乘을 본다면 (1)에 없는 (2)의 ‘願終身丘壑’ 이하의 기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문제된다. ‘留’와 ‘今訛云’을 보아 一然禪師가 직접 단속사와 小花里에 가 보고서는 (1)의 기사를 참고하며 (2)의 설화를 썼으리라 추정된다. 그렇다면 李純이 王黨派로서 왕을 위해 단속사를 창건했고, 그뒤, 李純과 친구가 있으면서 王黨派이었던 신증이 反王黨派인 阿湏金良相에 밀려 남악의 단속사에 와서 왕의 眞影을 금당 뒷벽에 걸고 사문 생활을 했다고 할 수는 없을까? 만일 이 추정이 가능성을 지닌다면, 신증

7) 李基白(1974), pp. 220-21.

은 경덕왕대에 왕의 일련의 漢化政策수행에 적극 참여한 왕당파 인물로서 활약하다가 뒷날 金良相(경덕왕의 아들 惠恭王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인물—宣德王)의 반왕당파가 대두하자 정변에서의 생명보전을 위해 단속사에 숨었다고 볼 수 있을 듯하다. 그리고 단속사에는 率居가 그린 維摩像이 있었음을 보아⁸⁾ 이순이나 신충도 在家佛弟子로서 처자를 거느리고 이 절에서 살지 않았는가 추정된다. 따라서 신충은 왕의 漢化정책에 적극 참여한 점으로 보아 유교적 충의사상을 돈독히 지녔을 뿐만 아니라, 말년에는 단속사에서 廣德처럼 처자를 거느리고 般若에 입각한 보살행을 닦으며 산 인물이라 추정할 수 있겠다.

3) 忠談師

경덕왕대에 讚善婆郎詞腦歌와 安民歌를 지은 충담사에 관한 기록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 (1) 王御國二十四年 五岳三山神等 時或現侍於殿庭 三月三日 王御歸正門樓上 謂左右曰 誰能途中得一員榮服僧來 於是適有一大德 威儀鮮潔 徜徉而行 左右望而引見之 王曰 非吾所謂榮僧也 退之 更有一僧 被衲衣負櫻筒 從南而來 王喜見之 邀致樓上 視其筒中 盛茶具已 曰 汝爲誰耶 僧曰 忠談 曰 何所歸來 僧曰 僧每重三重九之日 烹茶饗南山三花嶺彌勒世尊 今茲既獻而還矣 王曰 寡人亦一甌茶有分乎 僧乃煎茶獻之 茶之氣味異常 甌中異香郁烈 王曰 朕嘗聞師讚善婆郎詞腦歌 其意甚高 是其果乎 對曰然 王曰 然則爲朕作理安民歌 僧德時奉勅歌呈之 王佳之 封王師焉 僧再拜固辭不受 安民歌曰……云云 (三國遺事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條)
- (2) 善德王時 釋生義常住道中寺 夢有僧引上南山而行 令結草爲標 至山之南洞 謂曰 我埋此處 請師出安嶺上 既覺 與友人尋所標 至其洞掘地 有石彌勒出 置於三花嶺上 善德王十二年甲辰歲 創寺而居 後名生義寺 (今訛言生義寺 忠談師每重三重九 烹茶獻供者 是此尊也) (三國遺事 生義寺 石彌勒條)

위의 두 설화를 보면, 충담사는 남산 三花嶺에 있는 生義寺의 彌勒世尊을 돈독히 받들던 승려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金善琪님은 경덕왕대에

8) 又慶州芬皇寺觀音菩薩 晉州斷俗寺維摩像 皆其筆蹟 世傳爲神畫 (三國史記 列傳第八 率居條). 그리고, 신라시대 維摩經을 보면 元曉가 維摩經宗要 1卷, 維摩經疏 3卷을 지었고, 憬興이 無垢稱經疏 6卷을 지었음.

충담사가 왕을 위해 理安民歌를 짓고 李純이 王道의 묘리와 治世의 方法을 왕에게 가르친 것을 증시하여 충담사가 곧 이순일 것이라 추정하였다.⁹⁾ 그러나 金님의 이 추정에는 고증이 너무 박약하다 하겠다.

충담사는 남산 三花嶺(지금의 경주 남산 북봉의 남쪽 嶺上의 부채방)의 미륵세존을 숭앙하면서 王都에 살던 승려이고,¹⁰⁾ 이순은 관동이 大奈麻로서 왕의 총애를 받다가 景德王 7년(748)에 출가하여 南岳(지금의 경남 산청군 丹城面 지리산 동쪽)에 들어가 槽淵小寺를 고쳐 지어 큰 절로 삼고 절 이름을 斷俗寺라 하고 그 절에 살던 왕당파에 속했던 인물로서 大乘佛敎系의 한 종파를 신봉하던 인물일 것이다. 이것이 충담사와 이순이 다같이 왕에게 忠諫을 했다 하더라도 충담사는 미륵사상을 깊이 숭앙하면서 왕도에 살았고, 이순은 대승불교계의 한 종파를 신봉하면서 남악에 살았으니 동일 인물로 다루기 곤란한 점이다. 그리고 또 이순이 충담사였다고 한다면, 왕은 일찍부터 이순을 총애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 터인데 “네가 누구냐”라고 물은 점으로 보아서도 충담사와 이순은 동일 인물이 아님을 알 수 있다.¹¹⁾

4) 永 才

元聖王代에 鄉歌를 지어 도적 60여인을 회개시켜 佛弟子로 만든 永才에 대한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 釋永才性滑稽 不累於物 善鄉歌 暮歲將隱于南岳 至大峴嶺 遇賊六十餘人 將加害 才臨刃無懼色 怡然當之 賊恠而問其名 曰永才 賊素聞其名 乃命□ □□作歌 其辭曰……中略……賊感其意 贈之綾二端 才笑而前謝曰 知財賄之爲地獄根本 將避於窮山 以餓一生 何敢受焉 乃投之地 賊又感其言 皆釋 劍投戈 落髮爲徒 同隱智異 不復蹈世 才年僅九十矣 在元聖大王之世
(三國遺事 永才遇賊條)

9) 金善琪, '씨이빠노래', 現代文學 147호 pp.292-94, 現代文學社, 1967. 3월호.

10) 三國遺傳 景德王 忠談師 惠訓大德條에 충담사가 '從南而來' 하였다는 점을 보아 왕도에 살면서 重三·重九일에 남산 삼과령의 미륵세존에게 茶를 다려 바친 승려일 것이다.

11) 拙著, 韓國上古文學研究 pp.117-8 참조, 第一文化社, 1978.

8 韓國文學論叢 第3輯(金鍾雨博士 停年退任紀念號)

(2) 永才禪師 嘗遇賊六十餘人 作歌化之 賊皆落髮 爲徒同入智異山 不復跡世
(大東禪教考)

永才는 天性이 활달하고 諧謔을 좋아하였으며 재물에 매이지 않았던, 그리하여 도적의 칼날 앞에서도 두려워하는 빛이 없었고, 또 그들이 주는 비단 二端도 지옥에 가는 근본이라 여겨 받지 않았던 승려이다. 즉, 그는 원효의 發心修行章에 나오는 수도자의 자세를 견지하고 南岳(智異山)에 避隱하던 승려이다. 南岳이란 華嚴宗의 十大寺刹의 하나가 있던 곳이다. 三國遺事 義湘傳教條를 보면

‘義湘은 이에 十刹에 승을 내려 教를 傳하니, 太伯山의 浮石寺·原州의 毘摩羅寺·伽耶의 海印寺·毘瑟의 玉泉寺·金井의 梵魚寺·南嶽의 華嚴寺 등이 그것이다.’

라 하여 南岳에 華嚴宗의 한 사찰인 華嚴寺가 있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唐大薦福寺 法藏和尚傳에서도

‘海東 華嚴宗 大學의 장소로서 十山이 있었는데, 中岳 公山의 美理寺·南岳 智異山의 華嚴寺·北岳의 浮石寺·康州 迦耶山의 海印寺와 普光寺·熊州 伽耶峽의 普願寺·鷄龍山의 岬寺·朔州의 華山寺·良州 金井山의 梵魚寺·毘瑟山의 玉泉寺·全州 母山의 國神寺, 그리고 漢州 負兒山의 靑潭寺가 있어서 이 十所이다.’

라 하여 南岳인 智異山에 華嚴寺가 우리나라 華嚴宗 大學의 장소의 하나라고 말하고 있다. 永才가 南岳(智異山)으로 避隱한 것은 그가 華嚴宗의 불교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III

이상으로서 네 향가작가의 사상을 고구해 보았으나, 자료의 영성이 결국 추정만 강요하기에 그에 따라 어디까지나 시도에 불과한 추정으로만 끝냈을 뿐이다.

(1) 月明師는 미타·비륵을 신봉하는 국선지도이며 승려인데 四天王寺

에 常居해 있었음을 보아 眞言宗(瑜伽宗)의 불교사상을 가진 인물임을 추정할 수 있었고,

(2) 信忠이 李純의 경영한 斷俗寺에 피어난 王黨派의 인물임을 보아 유교적 충의사상 위에 반야에 입각한 보살행을 닦던 在家僧의 인물로 다루어질 수 있었고,

(3) 忠談師는 경주 남산 三花巖의 미륵세존을 숭앙한 것을 보아 미륵사상을 가진 인물임을 쉽게 알 수 있었으며,

(4) 永才는 해동 화엄종의 도량의 하나인 南岳으로 피어난 점으로 보아 華嚴宗의 불교사상을 지닌 승려임을 추정할 수 있었다.